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명예박사학위 수여

97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석·박사 6백82명 배출



오늘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오전 11시 크라운관에서 개최되는 97학년도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학위수여, 총장 축하, 학원장 격려사, 김 당선자 치사, 축하연주 순으로 진행된다.

학위수여 순서 중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될 명예 경제학박사 학위수여식은 백영식 대학원장의 학위수여자 약력 소개 및 학위수여 추천사에 이어 조정원 총장의 학위수여 승인사와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이번 학위수여식으로 박사 1백13명, 석사 5백69명, 연구과정 수료자 3백 9명을 배출하는 우리 학교 대학원별 졸업인원은 다음과 같다. <졸업생 명단 4·5·6·7면>
△일반대학원=박사 1백13명, 석사 3백22명 △경영대학원=석사 51명, 최고경영자과정 23명 △교육대학원=석사 1

백2명, 지도자과정 53명 △행정대학원=석사 40명, 최고정책 및 의회지도자과정 60명 △평화복지대학원=석사 12명, 새마을금고 경영자과정=24명 △언론정보대학원=석사 4명, 언론연구과정=5명, 스피치토론 전문과정 20명, 디지털영상제작 전문과정=14명 △산업정보대학원=석사 32명, 최고경영자 과정19명 △체육학과대학원=석사 6명, 최고체육지도자 과정 46명 △국제법무대학원=국제법무지도자 과정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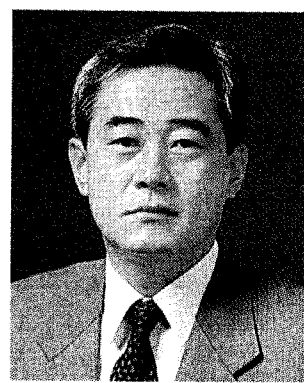
석·박사 학위수여자는 대학원 교무과에서 신분 확인과정을 거친후 졸업표를 받아 제시해야 식장에 출입할 수 있고 석·박사 학위수여자를 제외한 기타 방문객은 식장에 출입할 수 없다.

<남이 기자>

축사

“희망찬 21세기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정원
(총장)

때문에 졸업식을 거행하면서 축하와 격려, 그리고 미래와 꿈을 얘기하기 전에 걱정과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당부해 주는 현실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늘의 경제적 기적을 일구어 낸 민족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내란에도 불구하고 5천년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 온 민족이기도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금가락지를 들고 나오는 국민과 팔을 걷어 부치고 헌혈을 하기위해 기다리던 우리대 모습은 모두에게 아직도 감동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계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내는 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국민이 있는 한 이 어려움은 곧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육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분이 대학에서 갖고 닦은 지식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졸업생 여러분이 이끌고 나아갈 사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정보화의 눈부신 진전은 사람들의 행동양태는 물론 국가의 산업구조까지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은 졸업생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졸업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식을 갖고 뛰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학문의 완성과 마감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자라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성과 개성이 동시에 존중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급변하는 사회에서 완성된 지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을 연마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일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일상화되면서 대학간 경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대학은 대학종합평가와 교육개혁평가 등 일련의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대학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인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같은 외형적 평가결과에 결코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려 합니다.

재학생이나 교수 모두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내고 졸업생도 자신이 연마한 학문적 업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여망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다운 대학'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사회는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독단적이고 편협한 천재보다는 건설되고 화합할 줄 아는 인재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우대받는 이유로 인성교육을 중시해 온 우리대학의 교육방식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언제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을 지녔다는 의미이며, 가능성은 반드시 결실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경희인임을 잊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희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경희의 명예를 생각하고 모교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경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배이자 경희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빛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명예경제학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참관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구해 낸 위대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도 아울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졸업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상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안내

2 동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3 축사
학원장 축하

4~7 졸업생 명단
석·박사 학위수여자 명단

8 졸업특집
97학년도 경희발전상

학위수여를 축하합니다

김대중 동문 대통령 취임

영욕의 역사속에 첫 정권교체 신화 창조

불굴의 정치인으로 살아온 김대중 동문 대통령당선자가 오늘 경제학 명예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우리 학교를 찾는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우리 학교 동문으로서 대통령배출이라는 큰 의의도 있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로 한국 정치의 일대 혁명을 일궈낸 신화창조에 있다.

군부 독재시절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몇 차례 생명을 잃을 고비까지 넘기기도 했고 대선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시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한 그에게 이번 대통령 당선은 한편의 파란만장한 드라마이다.

김 당선자는 1925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에서 태어나 1943년 목포 공립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우리 학교 경영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과 70년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그후로도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연구활동을 꾸준히 한 바있다. 그 결과 '대중경제론'을 비롯한 30여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부터 10여개의 명예박사 학위와 명예 교수직을 수여받았다.

그의 6년간 옥중 생활, 10년의 연금 및 망명 생활 그리고 다섯 차례의 생명의 위협을 넘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 인권 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인권상을 수상했고 특히 1987년부터 97년까지 11년간 노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당선자)

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1994년부터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대선이 끝난 직후 그가 보여준 경제위기

대처능력은 지난 대선 구호처럼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한껏 발휘한데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해결해야 할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구도의 갈등', '평화통일' 등의 산적한 과제는 김당선자가 살아온 영욕의 세월보다도 더 험난할 수 있다.

오늘 김당선자가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동문으로서 대통령 당선 축하'가 아니라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화합', '평화통일'의 기틀을 잡고 21세기의 새로운 신화창조를 열어주기를 기대하는 전 경희인의 뜨거운 기원이다.

경희가족으로서 지난해 대선 직전 우리 학교로부터 경희가족상을 받은 바 있는 김 당선자 가족은 장남 김홍일의원이 71년 정치과를 졸업했고 차남 김홍업씨가 72년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맏며느리 윤혜라씨가 불어교육과(74년)를, 둘째며느리 신선연씨는 외국어교육과(77년)를 졸업했다.

<취재부>

선거캠페인 전문과정 신설

언론정보대학원(원장:이경자 교수)은 새학기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로 '선거캠페인 전문과정(책임교수:김장남 정치학 박사)'을 신설했다.

총무과, 경제살리기 실천항목 발표

학내구성원 협조 요청

서울캠퍼스 총무과는 IMF시대를 맞아 해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제살리기 소비절약운동 실천항목'을 발표했다.

총 5개의 실천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이 항목의 분야별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절감운동
△사무기기 및 전기교체 억제 △외국 기차제 도입 억제 △행사 및 행사비용 축소
2.차량 10부제 운행 실시
△98년 2월 1일부터 차량 10부제 전면 시행 △자율적 카풀제 실시
3.에너지 절약운동
△사무실 조명 50% 절전 △겨울철 사무실 실내온도 18℃ 유지 △사무실 난방기 및 전열기구 철거 △오후 8시 이후 잔류 인원 통제
4.인쇄물 줄이기 운동
△인쇄물 20% 줄여 인쇄 △교내용 대봉투 5회 이상 의무 사용 △교내용 통용문서 이면지 사용 △복사기 사용대장 작성
5.국산품 애용운동
△외국품 사용 절제 △양담배·양주 구입 절제 △국산차 애용 △개입접 마린 및 일회용 컵 사용절제

대학원 외국어 대체 강좌

영·일·중·독어 4개월간 개설

국제교육원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9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 대체강좌'를 개설한다.

오는 3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

하는 이번 강좌의 영어과목 시간표는 표와 같으며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강의는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국제교육원 301, 302, 303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의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무실에서 원서를 배부받아 등록하면 되고, 등록원인이 8명을 넘지 않는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또한 등록취소 및 수강료 환불은 개강 전일까지만 가능하다.

과목	요일	시간	강의실
영어(박사)	월.수	오후7시~오후8시 오후8시10분~오후9시10분	301
영어(석사)	월.수	오후7시~오후8시 오후8시10분~오후9시10분	302
영어(석사·인문·자연)	월.수	오후7시~오후8시 오후8시10분~오후9시10분	303

자유공모과제, 연구박사 심사중

3월초 결과발표

지난 1월 24일 신청을 마친 교비 자유공모과제에 총 83과제가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이다.

심사결과는 3월초 발표될 예정이며, 그 외에 지난 2월 9일부터 6일간 접수를 받은 연구박사 과제에도 5명이 신청했는데, 정진모 물리학과 박사의 O(N)^{0.4} 이론의 3-Loop 유효포텐셜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심사결과 또한 3월초 발표된다.

사설

우려는 기우이다

오늘 김대중 차기 대통령이 모교에 금의환향했다.우리 전 경희가족의 자람이 아닐 수 없으며 오직 감격스러울 뿐이다.먼저 전 경희인의 이름과 정성을 모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오랜 정치생활 동안 그토록 혹독한 역경을 이겨낸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의지와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감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9일 본교 대학원 위원회는 김대중 차기 대통령에게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학교 당국은 많은 검토와 장고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김대중 차기 대통령의 일정보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배출한 대학으로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모교의 방면에 대해 몇몇 언론에서 학연과 연결지워 조소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현대 정치사를 돌이켜 보면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 헌정사를 얼마나 얼룩지게 했던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우리 대학도 그 한 피해자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연고문화는 아직도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다.

우리대학은 지금 50주년을 눈 앞에 두고 있다.우리대학의 건설사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찾아 경희인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역사이다.결코 누구의 힘도 누구의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다.이것이야말로 만천하에 내보일 수 있는 경희의 정신이자 자산이다.우리는 차기 대통령과의 학연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빌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학은 대학의 본분이 있고 갈 길이 있다.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학연을 정치적 목적과 연결짓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릇된 생각이다.차기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간의 비취진 우려는 다만 기우일 뿐이다.

금의환향하는 동문 대통령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인자상정이다.동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그냥 아름답게 보아 줄 일이다.

여섯째 그렇게 해 왔듯이 우리대학은 어떠한 힘에 의지하지 않고 뜻이 21세기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정도를 당당히 걸어갈 것이다.우리는 다만 차기 대통령이 이 국난을 극복하고 5년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위대한 지도자로서 다시 모교를 찾아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